

# 古漢語 연구와 〈史記〉文獻 정리\*

서 원 남  
(한양대학교)

## 1. 서론

고문헌은 고대한어의 문자, 어휘, 어법을 이용하여 다방면에 걸친 지식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야말로 정보전달 주체이다. 그러나 정보전달 주체로서 문헌은 정치적, 사회적, 혹은 문헌 자체의 요인 등 다양한 이유로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며 전해지지 못하였다. 《史記》는 서한 宣帝때 사마천의 외손 楊惲에 의해서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그 후로 약 2,000년 동안 《史記》는 중국인들의 사유와 행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으며, 중국의 역사를 대변하는 문헌으로 평가받고 있다. 漢-唐을 시작으로 明, 淸을 거쳐 근현대와 오늘날까지 《史記》는 아마 단일 문헌으로서는 가장 많은 사람이 연구를 하였고, 그 결과물도 가장 많은 문헌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점은 중국의 역사에서 《史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문헌과 마찬가지로 《史記》 또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유전 과정에서 원본 《史記》의 모습이 많이 유실되었다. 사마천 원본 《史記》는 차례하고라도 兩漢 시기의 抄本들조차 모두 소실되어 전해지지 않는다. 위진 이후 수당까지 일부 잔편들만 전해질 뿐이며, 송 이후에 와서야 刊刻本들이 전해지게 되었다. 《史記》판본 고증에 따르면, 송 이후 전해지는 《史記》의 판

\* 이 논문은 2012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12-G)

본은 약 60여종에 달하며, 지금까지는 中華書局본이 가장 완전하고 오래된 판본으로 알려져 있다<sup>1)</sup>. 양한을 시작으로 당대까지 《史記》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이 시기에는 주로 원문에 대한 주석 작업이 주를 이루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三家注, 즉 남조 宋 裴駰의 《史記集解》, 唐代 司馬貞의 《史記索隱》 및 張守節의 《史記正義》가 있다. 초기에 三家注는 단행본으로 통행되었고, 宋代에 들어서 《史記》원문 아래에 三家注를 판각한 합각본이 성행하게 되었다. 그 후로 三家注 단행본들은 모두 소실되고 合刻本만이 전해지게 되었다. 《史記》 三家注는 다양한 판본과 역대로 많은 《史記》 연구가들의 주장들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三家注의 문헌적 가치가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sup>2)</sup> 程金造는 《論史記三家注解》에서 “삼가주는 고본의 자첩, 인용된 서적의 풀이, 역사서의 원류를 찾는 면 외에도 문자, 훈고 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문헌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였고, 나아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천 수 백년이나 전해졌으니, 자연적으로 그 지위 버릴 수 없는 기능이 형성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sup>3)</sup>. 이처럼 《史記》 三家注의 문헌적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史記》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학 혹은 문학 분야로 집중되어 있어, 전통언어학적인 측면에서 《史記》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언어학사에서 기존 언어학의 자료를 보충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대한어의 연구와 고문헌 정리라는 측면에서 《史記》와 三家注의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安平秋, 張大可, 愈樟華 共著, 《史記教程》, 華文出版社(2002), p455-475.

2) 《史記集解序》云“采經傳百家, 并先儒之說, 刪其游辭, 取其要實.”《史記索隱序》云“探求異同, 采摭典故.”《史記正義序》云“六典九流, 地里蒼雅, 銳心觀采.”

3) 程金造, 《論史記三家注解》“三家注在古本字帖上, 在引書釋解上, 在史書本源上, 以及在文字訓詁上等等, 本身有其一定的價值.”又云“在歷史時間上, 千數百年以來, 又自然造成了它不可磨滅的功用.”(《史記管窺》, 陝西人民出版社, 1985年)

## II. 古漢語 연구와 〈史記〉

사마천의 <史記>와 <三家注>에는 한자 연구와 관련된 내용들이 각 편장에 산재되어 있어 중국 문자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孔子世家>의 “河不出圖，雒不出書，吾已矣夫!” 구절은 先秦시기의 문자출현에 대한 전설을 기록한 것으로 兩漢 今古文 經學 논쟁의 단초가 되기도 하였다<sup>4)</sup>. 또한 <儒林傳>의 “孔氏有古文尙書，而安國以今文讀之，因以起其家.” 구절은 西漢 초기 經學과 文字學의 태동 및 발전 상황에 대한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밖에 <秦始皇本紀>에 기록된 “同書文字”를 통해서 진시황 시대에 ‘文’, ‘名’, ‘書’ 혹은 ‘書契’라는 용어를 사용한 시기를 넘어 이미 ‘文字’라는 단어가 보통명사로 사용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史記>의 내용에 근거하여 생각해 보면 그 후대의 경학 및 언어학사의 발전을 이해하는 도움이 된다. 즉 무제시기 박사인 공안국이 전국시기의 고문자로 기록된 경전을 해석할 수 있는 문자학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양한시기에 문자에 대한 자형과 자음, 자의에 대한 연구의 출발이 가능하게 되어 <說文解字>와 <方言> 등 새로운 자서의 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sup>5)</sup>. 또한 <秦始皇本紀>에 “一法度衡石丈尺，車同軌，書同文字”라고 기록하였는데, 바로 중국언어학사에서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 한 후에 六國의 古文을 폐하고 진나라 계열의 小篆을 통일 문자로 사용하였다고 기록하는 “書同文字”설의 근거자료 가운데 하나가 된다. 또한 <太史公自序>의 “三王不同龜，四夷各異卜，然各以決吉凶.”와 “昔在顛頊，命南正重以司天，北正黎以司地”라는 기록과 <龜策列傳>의 “聞古五帝，三王發動舉事，必先決蓍龜”의 기록을 통해 최근 河南省 高辛墟기유적지에서 발굴된 龜甲의 符號들과 殷墟의 갑골문이 모두 점복과

- 4)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기록들이 다른 선진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尙書·顧命> “大玉夷玉天球河圖在東序”, <易·繫辭> “河出圖，洛出書，聖人則之”, <管子·小匡> “昔人之言受命者，龍龜假，河出圖，洛出書，地出乘黃.”, <禮記·禮運> “河出龍馬，鳳凰麒麟皆在郊” <論語·子罕> “子曰鳳凰不至，河不出圖，吾已矣乎!” 이러한 기록을 통해 <史記> 편찬 자료의 출처와 편찬 의도를 알 수 있다.
- 5) 許慎<說文解字·序> “秦始皇帝初兼天下，丞相李斯乃秦同之，罷其不與秦文合者。李斯作<倉頡篇>，中車府令趙高作<爰歷篇>，太史令胡毋敬作<博學篇>，皆取史籀大篆，或頗省改，所謂小篆者也”

관련된 것이며, 중국 서남지역에 위치한 彝族, 羌族, 納西族들이 고대 중원지역에서 사용하였던 동물의 뼈를 이용하여 길흉을 점치는 행위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중원문자는 다원화된 즉 중원 이외의 지역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sup>6)</sup>. 아울러 사마천 역시 倉頡과 祝融을 모두 사관으로 보았고 각각 다른 부족을 대표하여 공동으로 문자 창조에 기여했음을 인식하고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秦本紀>의 厲公2년(BC475)의 “蜀人來賂”과 秦孝公元年(BC361)의 “楚自漢中, 南有巴·黔中”의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에 漢中 지역은 蜀과 秦의 경계에 해당하는 지점으로 초나라가 巴蜀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7)</sup> 따라서 巴蜀 지역이 중원과 매우 긴밀한 교류가 있었고 이미 중원문자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sup>8)</sup> 아울러 <西南夷列傳>의 “처음 초 위왕 때, 장군 장교를 시켜 군사를 이끌고 강을 따라 올라가 꾀, 검중의 서쪽을 공략하게 하였다. 장교는 본래 초 장왕의 후손이다. 장교가 전지에 이르니, 사방 300의 땅에, 옆은 평지로 비옥하고 부유한 것이 수천리나 되어, 군사의 위력으로 평정하여 초나라에 속하게 하였다. 돌아가 보고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진나라가 공격하여 초나라의 꾀, 검중을 빼앗아 버려 길이 막혀 통행할 수 없었다. 때문에 다시 돌아와 그 무리를 이끌고 전에서 왕이 되어 그곳의 풍속을 따라서 그곳의 군장이 되었다(始楚威王時, 使將軍庄蹻將兵循江上, 略巴, 黔中以西. 庄蹻者, 故楚王苗裔也. 蹻至滇池, 方三百里, 旁平地, 肥饒數千里, 以兵威定屬楚. 欲歸報, 會秦擊

- 
- 6) 漢字의 형성과 발전에 관하여 <封神書>의 <史記正義>에서는 <世本>을 인용하여 “夏禹都陽城, 避商均也”라고 풀이하였다. 이는 지역적으로 볼 때 오늘날의 河南省 서쪽 일대로 夏의 활동 무대이며 후에 二里頭文化가 발견된 곳이다. 따라서 이곳에서 발굴된 자료와 <史記>의 기록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夏代에 이미 오늘날의 한자의 출발에 해당하는 상당한 정도로 발달한 문자가 있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있다.
- 7) <史記集解·孟子荀卿列傳>에서는 劉向의 <別錄>을 인용하여 “商君被刑, 佞恐並誅, 乃亡逃入蜀. 自爲造此二十篇書, 凡六萬余言. 卒, 因葬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초나라의 문화 및 문자가 巴蜀지역에 이미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 8) <四川榮經曾家溝戰國墓群第一, 二次發掘>의 경우 四川榮經曾家溝16호 전국시대 초기 묘에서 발굴된 칠기에 “成”, “成草”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춘추전국시대의 중원문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考古>1984년제12期)

奪楚巴,黔中郡,道塞不通,因還,以其衆王滇,從其俗,以長之.)”과 “전왕은 그 무리가 수만으로, 그 곁으로 동북쪽에 노침, 미막이 있는데, 모두 같은 성씨를 가지고 있어 서로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말을 따르려하지 않았다. 노침과 미막이 여러 차례 한나라의 사자, 관리, 군졸을 침범하였다. 원봉 2년에 황제는 파, 축의 군사를 동원하여 노침, 미막을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군사들을 전가끼리에 주둔시켰다. 전왕은 처음부터 선의를 가지고 있었던 까닭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전왕 이난은 서남이의 인솔하여 항복하고, 한나라의 관리를 두고 입조할 것을 청하였다. 그래서 그곳을 익주군으로 삼아 전왕에게 왕의 인을 하사하고 다스 그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었다(滇王者, 其衆數萬人, 其旁東北有勞耜, 靡莫, 皆同姓相扶, 未肯聽. 勞靡莫數侵使者吏卒. 元封二年, 天子發巴蜀兵擊滅勞靡莫, 以兵臨滇. 滇王始首善, 以故弗誅. 滇王離難西南夷, 舉國降, 請置吏入朝. 於是以為益州郡, 賜滇王王印, 復長其民.)”과 <東越列傳>의 “원정 5년, 남월이 반란을 일으키자, 동월왕 여선은 상서하여 병종 8천을 이끌고 누선장군을 도와 여가를 치겠노라고 하였다(至元鼎五年, 南越反, 東越王餘善上書, 請以卒八千人從樓船將軍擊呂嘉等), “余善刻武帝璽自立, 詐其民, 爲妄言”라고 기록되었는데, 1995년부터 4차례의 발굴 작업을 통해 발견된晉寧石寨山の滇王과 그 가족묘와 江川李家山에서 발굴된 27기의 묘에서 발견된滇 지역의 사람들이 남긴 유물들을 비교해 보면<sup>9)</sup>, 당시에 漢字가 파촉 지역뿐만 아니라 운남, 민월 등 다른 남방지역의 상류층에서도 이미 한자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0)</sup>. 이외에도 <史記>와 三家注를 통하여 고한어 연구와 관련된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다.

9) 이와 관련한 자료로 <雲南晉寧石寨山古遺址和墓葬>(〈考古學報〉1956年第1期), <雲南晉寧石寨山古墓群發掘報告>(〈文物出版社〉1959年), <雲南晉寧石寨山第三次發掘簡報>(〈考古〉1959年第9期), <雲南晉寧石寨山古墓第四次發掘簡報>(〈考古〉1963年9期), <雲南江川李家山古墓群發掘簡報>(〈考古學報〉1975年第2期) 등을 참조 바람.

10) 이 밖에도 <秦始皇本紀>의 “發諸嘗逋亡人, 贅婿, 賈人略取陸梁地, 爲桂林, 象郡, 南海, 以適遣戍.” <南越列傳>의 “相三王, 宗族官仕爲長吏者七十餘人, 男盡尙王女, 女盡嫁王子兄弟宗室”, <南越列傳>의 “此以兵威邊, 財物賂遺閩越, 西瓯, 駱役屬焉” 등의 기록을 통해 漢字가 중국 南方 전역에 전파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1. 古今字의 用例

고금자는 통가자, 이체자와 함께 고문헌 정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특히 고금자는 통가자와도 관련성이 있어 고문 해독에 있어 매우 주의가 요하는 내용이다. <史記>의 경우에는 <三家注>를 통해서 몇 가지 형식으로 전편에 걸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 披 → 陂

『五帝本紀』: 『披山通道』(산을 개간하여 길을 통하게 하였다.)

謹按: 裴駰의 『集解』에서는 “披, 他本亦作陂. 字蓋當音諛, 陂者旁其邊之謂也. 披語誠合今世, 然古今不必同也.”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陂’자를 대신하여 ‘披’로 쓰고 있고 이 두 글자의 관계가 古今字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두 글자 모두 갑골문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說文』段注에서 “披, 陂皆有旁其邊之意”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 뜻이 모두 비탈진 것을 뜻하며, <索隱>에서는 “謂披山林草木而行以通道也(산림과 초목을 개간하여 길로 통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이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글자의 편방을 고친 고금자임을 알 수 있다.

### 2) 漑 → 既

『五帝本紀』: 『帝嚳漑執中而徧天下』(제곡은 대지에 물을 대주는 것처럼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게 은덕을 천하에 두루 미쳤다.)

謹按: 『集解』에서는 徐廣의 말을 인용하여 “古既字作水旁.”라고 하였는데, ‘既’자의 甲骨文 자형은 사람이 음식을 먹고자 고개를 돌린 모양을 본 뜬 구조로 되어 있다. 인신되어 “이미, 다하다”라는 의미가 파생되었다. 『說文』에서 “漑, 水. 出東海桑瀆覆甌山, 東北入海. 一曰灌注也. 從水, 既聲.”, “既, 小食也.”라고 하였다. 『集韻·未韻』에서는 “既, 通作漑.”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금자의 경우 古字에 形符 또는 聲符를 추가하여 今字가 만들어지는 규칙에 비추어 보면 『集解』의 주석에 착오가 있지 않나 의심된다. 『說文』 “一曰”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두 글자는 今字인 ‘漑’가 古字인 ‘既’의 인신을 대신하여 古今字의 관계를 형성하였다.

### 3) 嬪 → 禪

『秦楚之際月表』: 『五年之間, 號令三嬪。』(이 5년간 호령하는 자가 3차례나 바뀌었다)

謹按: 두 글자 모두 甲骨文에는 보이지 않지만 『說文』에서는 각각 “嬪, 緩也. 從女, 奘聲.”, “禪, 祭天也. 從示, 單聲.”이라고 풀이 하였다. 『索隱』에서는 “古禪字”라고 하였는데, 『漢書·王莽傳』“受嬪於唐”의 顏師古注에서 “嬪, 古禪字”라고 하였고, 『漢書·律曆志』“堯嬪以天下”의 顏師古注에서도 “嬪, 古禪讓字也.”라고 하였으며, 『楚辭·服賦』“變化而嬪”의 朱熹『輯注』에서도 “嬪, 與禪同.”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顏師古를 기준으로 그 이전 문헌에서는 ‘嬪’자를 그 후의 문헌에서는 ‘禪’자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 4) 泉 → 錢

『天官書』: 『下有積錢』(지하에 묻힌 금전과 보물)

謹按: 『集解』는 徐廣의 말을 인용하여 “古作泉字.”라고 하였다. 갑골문에 는 ‘泉’자를 『說文』의 소전 자형풀이와 마찬가지로 구멍에서 샘이 솟아나는 모양을 본뜬 자형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說文』에서는 “錢, 銚也, 古田器.”, “泉, 水原也.”라고 풀이하였다. 따라서 이 두 글자는 동음에 기초한 고금자의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管子·輕重丁』“今齊西之粟釜百泉”의 尹知章注 “泉, 錢也.”, 『周禮·地官·序官』“泉府上士四人”의 賈公彥疏 “泉與錢今古異名”, 鄭玄注 “古書泉或作錢.”의 주석이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孫詒讓의 『正義』“泉, 錢同聲, 古蓋通用.”, 錢大昕의 『廿二史考異·漢書三』“直貨錢二十五”에서 “錢, 則泉字.”, 段注 “秦漢乃假借錢爲泉.”, 朱駿聲의 『通訓定聲』“錢, 假借爲泉.” 등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泉자와 錢자는 先秦시기를 기준으로 동음에 기초한 古今字 관계임을 알 수 있다.

### 5) 醜 → 釋

『張儀列傳』: 『不服醜之』(장의가 승복하지 않으니 그를 놓아주었다)

謹按: 두 글자 모두 甲骨文에는 보이지 않는다. “醜”자의 경우 『說文』에

수록되 있지 않으나, 釋자는 “解也.”라고 풀이하고 있다. 결국 『索隱』의 “古釋字.”라고 한 것은 편방을 바꾼 고금자로 해석하였다. 『戰國策·燕策二』 “王欲醜臣剗任所善.”의 鮑彪注에서는 “醜, 釋同.”라고 하였고, 『集韻·昔韻』에서도 “釋, 或作澤, 釋, 通作醜.”라고 하였으며, 『爾雅·釋詁上』 “釋, 服也.”의 邵晉涵 『正義』에서도 “釋爲本字, 醜爲或體字, 澤爲別體字也.”라고 하였다. 단옥재는 『段注』에서는 『史記』以醜爲釋, 同聲假借也.”라고 하였으며, 『讀書雜誌·史記第五·刺客列傳』 “卒釋去之”의 注에서 王念孫은 “釋本作醜, 古多以醜爲釋字.”라고 하였다. 따라서 ‘醜’자와 ‘釋’자는 가차자의 관계로 고금자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 擿 → 擲

『刺客列傳』: 『乃引其匕首以擿秦王』(비수를 당기어 진나라 왕에게 던졌다)  
 謹按: 『索隱』에서는 “擿與擲同, 古字耳, 音持益反.”이라고 하였는데, 두 글자 모두 甲骨文에는 보이지 않는다. 『說文』에서는 “擿, 搔也.”라고 하였고, 段注에서는 “擿, 今字作擲. 凡古書用投擲字皆作擿, 許書無擲.”라고 하여 두 글자가 고금자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廣雅·釋詁』 “擿, 投也.”의 王念孫 『疏證』에서는 “擿, 則今擲字”라고 하였으며, 『莊子·胠篋』 “擿玉毀珠”의 陸德明 『釋文』에서도 “擿, 義與擲同.”이라고 하였다. 또한 『慧琳音義』 券三 “或擲”注에서도 “擲, 古文作擿”라고 하였다. 따라서 今字가 古字의 本義를 대신한 고금자의 관계를 형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7) 𪔐 → 戾

『司馬相如列傳』: 『𪔐夫爲之垂涕』(포악한 자도 이 때문에 눈물을 흘리다)  
 謹按: 『索隱』에서는 “𪔐, 古戾字.”라고 하였는데, 甲骨文에서는 ‘戾’자를 지명으로 사용하였다. 『說文』에서는 “𪔐, 彌戾也.”, “戾, 曲也. 從犬出戶下.”라고 각각 풀이하고 있는데, 『漢書·張耳陳餘傳』 “後相背之𪔐也”의 顏師古注에서 “𪔐, 古戾字. 戾, 違也.”라고 하였고, 『漢書·匈奴傳』 “黃金璽𪔐綬”의 顏師古注에서도 “𪔐, 古戾字.”라고 풀이하였다. 또한 『玉篇·玄部』에서도 “𪔐, 亦作戾.”라고 하였으며, 『廣雅·釋詁一』 “𪔐曲也”의 王念孫 『疏證』에



서도 “鑿與戾通”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鑿와 戾는 이체자의 관계로 고금자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 8) 踳 → 蹲

『貨殖列傳』: 『汶山之下, 沃野, 下有蹲鴟』(민산 아래 땅이 기름져 큰 감자가 잘 된다)

謹按: 『集解』에서는 徐廣의 말을 인용하여 “古蹲字作踳.”이라고 하였는데, 두 글자 모두 甲骨文에는 보이지 않지만 『說文』에서는 “蹲, 踳也.”라고 풀이 하였으나, “踳”字는 『說文』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莊子·外物』 “師弟子而踳於竅水”의 『經典釋文』에서는 『字林』을 인용하여 “踳, 古蹲字”라고 하였으며, 『集韻·魂韻』에서도 “踳, 蹲也”라고 하였다. 결국 선진문헌에서는 ‘踳’자를 사용하였고, 漢 이후로 모두 ‘蹲’자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진과 양한 사이에 두 글자는 고금자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通假의 用例

### 1) 張 → 帳

<高祖本紀>: “高祖後留止, 張飲三日”

<集解>에서는 ‘張, 幃帳(천막을 치다)’라고 풀이를 하였는데, <說文>에서는 ‘활에 시위를 매다’는 뜻으로 풀이하였다. 의미상으로는 서로 부합되지 않지만 상고음의 경우 張과 帳 두 글자는 모두 ‘陽端’으로 성모와 운모가 동일함으로 동음 통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2) 僂 → 戮

<汲黯列傳>: “公列九卿, 不早言之, 公與之俱受其僂矣.” 案: <說文>에서는 “僂, 癡行僂僂也.” “戮, 殺也.”라고 풀이하고 있다. 의미상으로 두 글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상고음에서 戮과 僂은 모두 覺韻·來紐·入聲의 동음자로 사용되었다. 문헌의 용례를 살펴보면 ‘僂’자는 주로 戮·戮의 통가자로

사용되었고, 戮자의 경우 戮의 통가자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사기에서는 義符가 다른 僂자를 本字로 쓰고 있다.

### 3) 徂 → 殂

<伯夷列傳>: “于嗟徂兮, 命之衰矣” 案: <索隱>에서는 “徂者, 往也, 死也”라고 풀이를 하였는데, <說文>에서는 ‘徂’자를 대신하여 “沮”자를 수록하고 있으며, 아울러 추가로 ‘徂’자를 흑체자로 수록하고 ‘가다’라고 풀이하였다. 따라서 두 글자의 의미가 서로 부합되지 않지만 徂와 殂는 상고음이 모두 ‘魚從’으로 성모와 운모가 같은 동음자이다. 따라서 “索隱”에서 ‘사망’의 뜻을 나타내는 ‘殂’자를 가차하였음을 알 수 있다.

### 4) 番 → 鄱

<伍子胥列傳>: “闔廬使太子夫差將兵伐楚, 取番” 案: <索隱>에서는 “과양 지역을 이르는 것이다(蓋鄱陽也.)”라고 풀이하였고, <說文>에서는 ‘番’을 ‘짐승의 발’이라고 풀이하였다. 두 글자의 의미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에 따라 <史記> ‘番’은 옛 지명을 뜻하는 ‘鄱’자를 가차하였음을 알 수 있다. 番의 상고음은 ‘元幫’이며, 鄱의 상고음은 ‘歌並’으로 상고음에서 番과 鄱의 운모가 元部, 歌部の 對轉이고 성모는 幫과 並의 準雙聲이다. 따라서 <史記>에서는 통가자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5) 招 → 韶

<五帝本紀>: “於是禹乃興九招之樂” 案: <索隱>에서는 ‘招자의 음은 韶로 읽는다. 바로 舜임금 시대의 음악인 簫韶를 의미한다(招, 音韶. 卽舜樂簫韶)’라고 하였다. <說文>에서는 ‘招’(손으로) 사람을 부르다’라고 풀이하였다. 두 곳의 글자의 풀이가 다름에 따라 <五帝本紀>의 ‘招’는 순의 덕을 칭송한 ‘韶樂’의 ‘韶’로 가차하였다. ‘招’의 상고음은 ‘宵章’이고 ‘韶’의 상고음은 ‘宵禪’이다. 상고음 ‘招’와 ‘韶’는 운모가 豐韻이고 성모가 旁紐임으로 통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 6) 澤 → 釋

<孝武本紀>: “古者先振兵澤旅, 然後封禪” 案: <集解>에서는 徐廣의 말을 인용하여 ‘옛날에는 釋을 대신하여 澤으로 썼다(古釋字作澤)’라고 하였다. <說文>에서 澤은 ‘광택이 나다’라고 풀이하였다. 따라서 <孝武本紀>의 ‘澤’은 ‘(군대를)해산하다’는 의미의 ‘釋’자를 가차한 것이다. ‘澤’의 상고음은 ‘鐸定’이고 ‘釋’의 상고음은 ‘鐸書’이다. 상고음 ‘澤’과 ‘釋’은 운모가 침운이고 성모가 鄰紐로 통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 7) 尙 → 當

<司馬相如列傳>: “卓王孫喟然而歎, 自以得使女尙司馬長卿晚” 案: <索隱>에는 ‘尙은 본래 當으로 쓰기도 한다(尙, 本或作當也)’라고 하였다. <說文>에서 ‘尙’은 ‘증가하다’ ‘보기도물다’의 두가지 뜻으로 풀이하였다. 따라서 <史記>의 ‘尙’은 ‘시집보내다, 배필이 되게 하다’는 뜻의 ‘當’자를 가차하였다. 尙의 상고음은 ‘陽禪’이고 當의 상고음은 ‘陽端’이다. 상고음 ‘尙’과 ‘當’은 운모가 같고 성모가 ‘禪’과 ‘端’의 準旁紐임으로 통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 8) 至 → 質

<蘇秦列傳>: “至公子延, 因犀首屬行而攻趙” 案: <索隱>에는 ‘지는 질로 써야 마땅하며, 공자 연을 인질로 삼다는 것을 의미한다(至當爲質, 謂以公子延爲質也)’라고 하였다. 따라서 <蘇秦列傳>의 ‘至’는 質을 의미하는 質字를 가차한 것이다. 至의 상고음은 質章이고 質의 상고음은 質端이다. 상고음 至와 質은 운모가 같고 성모가 準雙聲임으로 통가관계로 볼 수 있다.

## 3. 訓詁의 용례

<孔子世家>에 “공자가 살던 시대는 주왕실이 쇠약해져 예악이 사라졌고, 시와 서가 훼손되었다. 이에 공자는 삼대 즉, 하, 상, 주의 예에 대한 제도를 찾아 서전을 편찬하고 위로는 당요와 우순으로부터 시작하여 밑으로는 진의 목공에 이르기까지의 일들을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다(孔子之時, 周室微而禮

樂廢, 詩書缺. 追迹三代之禮, 序書傳, 上紀唐虞之際, 下至秦繆, 編次其事)”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볼 때 공자 이전에도 이미 <尙書>와 관련한 훈고저작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1)</sup>. <史記>와 三家注를 통하여 훈고의 용례를 살펴보자.

### 1) 인명에 대한 풀이

<齊太公世家>: “太公望呂尙者, 東海上人” ⇒ <索隱>에서는 譙周의 말을 인용하여 “성은 강이고, 이름은 아이다. 염제의 후예이고 백의의 자손이며, 사육을 관장하는데 공을 세워 여라는 지역에 봉해졌다. 그 자손들은 그 봉읍 지역의 성을 따랐는데 여상은 그 후손이다.(姓姜名牙, 炎帝之裔, 伯夷之後, 掌四嶽有功, 封之於呂, 子孫從其封姓, 呂尙其後也)”라고 풀이하었다.

### 2) 지명에 대한 해석

<白起傳>: “王畿齷皮牢, 拔之.” ⇒ 張守節《正義》에 “王畿, 故城在絳州龍門縣西一里”

<秦本紀> “四年, 取蒲阪” ⇒ 張守節《史記正義》 “蒲阪, 故城在蒲州河東縣南二里, 卽堯舜所都也.”

### 3) 今語로 古語를 풀이한 경우

『平準書』: 『留滯無所食』 ⇒ 『索隱』에서는 『古今字詁』를 인용하여 “滯今滯字, 則滯與滯同.”

### 4)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풀이

<刺客列傳>: “《政》乃市井之人” ⇒ <正義>: “古者相聚汲水, 有物便賣, 因

11) <國語·周語下>의 “吾聞之<大誓故>曰: ‘朕夢協朕卜, 襲於休祥, 戎商必克’”와 <墨子·尙賢>의 “且以尙賢爲政之本者, 亦豈獨子墨子之言哉! 此聖王之道, 先王之書, 距年之言也. <傳>曰: ‘求聖君哲人, 以裨輔而身.’ <湯誓>曰: ‘聿求元聖, 與之戮力同心, 以治天下’”을 기록을 통해서 <大誓故>와 <傳>등이 모두 <尙書>의 훈고와 관련된 저작임을 알 수 있는데, 章太炎의 “<太誓>有故, 猶 <春秋>有傳.”라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成市, 故云市井.” 즉, ‘市井’이라는 말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나서 다시 ‘故云’이라는 말로 추론을 이끌어 내어 결국 풀이하고자 하는 낱말을 밝히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5) 名物制度의 풀이

<殷本紀>: “主癸卒, 子天乙立, 是爲成湯” ⇒ 《索隱》에서는 譙周의 말을 인용하여 “하대와 은대의 예에 따르면 생전에는 왕이라 칭하였고 사후에는 묘주라고 칭하였는데 모두가 제왕의 이름으로 필적하였다(夏殷之禮, 生稱王, 死稱廟主, 皆以帝名配之)”라고 하여 선진시기의 제도에 대한 의문을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다.

### 6) 조사에 대한 훈고

《孝文本紀》“而曰豫建太子, 是重吾不德也. 謂天下何? 其安之.” ⇒ 司馬貞 《索隱》에서 “其, 發聲也.”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이는 후대 훈고 형식 가운데 하나인 “A, ~也”의 형식이 이미 《史記》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7) 통언을 이용한 훈고

《留侯世家》의 “良嘗閒從容步游下邳圯上.” ⇒ 《集解》에서 “徐廣曰: 圯, 橋也. 東楚謂之圯, 音怡.”라고 풀이하였는데 이는 通語인 ‘橋’를 사용하여 方言인 ‘圯’를 풀이한 것이다<sup>12)</sup>.

《項羽本紀》의 “亞父者, 范增也.” ⇒ 《集解》에서 “如淳曰: 亞, 次也. 尊敬之. 次父猶管仲爲仲父.”라고 풀이하는데, 여기서 ‘亞’를 ‘此’로 풀이하였는데 이는 本義를 이용하여 字義를 풀이한 것이며, 또한 ‘尊敬之’로 구체적으로 보충하여 설명하고 뒤이어 같은 형식으로 ‘次父’를 ‘管仲爲仲父’로 풀이하고 있다.

12) 《說文解字》에서 “圯, 東楚謂橋.”라고 하였으며 段玉裁 또한 注에서 “太史公曰: 彭城以東, 東海, 吳, 廣陵, 此東楚也.”라고 풀이하고 있다.

### 8) 객관적 현실에 근거한 낱말 풀이

훈고에 있어 詞義 풀이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史記>에서는 낱말의 해석에 있어 고대의 어려운 표현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로 당시의 언어를 사용하여 풀이하고 있다. 예를 들면 <尙書·堯典>의 “庶積咸熙” 구절을 풀이함에 있어 먼저 <爾雅>의 “庶, 衆也. 積, 功也. 咸, 皆也. 熙, 興也.”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五帝本紀>에서 “衆功皆興”이라고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하고 있다.

### 9) 篇章 분석의 자료를 제공

문장의 篇章 구조를 분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論語·學而>편의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이 3구절은 어찌 보면 별로 관계가 없는 구절이 하나의 章節을 이루고 있어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史記·孔子世家>의 “定公五年,.....孔子不仕. 退而修詩, 書, 禮, 樂. 弟子彌衆, 至自遠方, 莫不受業焉.”기록을 통해서 공자의 이 장절 편찬 배경과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

10)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左傳>과 <史記>의 기록을 살펴보면 <左傳>에서는 “祭仲專, 鄭伯患之, 使其嬖雍糾殺之.”로 기록하였으며 <史記>에서는 “祭仲專國政, 厲公患之, 陰使其嬖雍糾欲殺之.”라고 기록하였다. <史記>에서는 ‘專’자 뒤에 빈어 ‘國政’을 추가하여 이 사건이 국가대사와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鄭伯’을 ‘厲公’이라 고쳐 鄭나라 어느 시기의 鄭伯인지에 대한 모호함을 해소하였다. 또한 ‘使’자 앞에 狀語인 ‘陰’을 추가하여 ‘암중 모색’하다는 의미를 살려내었고, ‘殺’자 앞에 ‘欲’자를 부가하여 그 일이 계획 중에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을 <左傳>보다 더욱 상세하고 명료하게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語法用例

<史記>三家注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주석서로 劉宋 裴駰의 <史記集解>와 唐 司馬貞의 <史記索隱>, 張守節의 <史記正義>를 말하며 宋 이전에는 단행본으로 전해졌으며 그 후에 <史記>원문에 수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三家注는 漢唐시기의 언어연구에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고한어의 문장 구조의 현상을 연구에 있어 귀중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 1) <秦始皇本紀>: “禹鑿龍門, 通大夏, 決河亭水, 放之海.” <周本紀>: “晉唐叔得嘉谷, 獻之成王” ⇒ 동사가 술어, ‘之’가 빈어, 뒤에 개사 ‘於’를 생략하고 뒤의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구조들을 이루어 개사 ‘於’가 처소나 대상을 나타낸다. ‘放之海’는 ‘放之於海.’의 생략형이며, ‘之’는 ‘河亭水’를 대신하며, ‘海’는 ‘放’의 목적지가 된다. 마찬가지로 ‘獻之成王’은 ‘獻之於成王’의 생략형으로 ‘之’는 ‘嘉谷’을 대신하며, ‘成王’이 獻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후대의 정형화된 ‘述賓補式’의 기초 자료들이 <史記>에 자주 보인다.
- 2) <項羽本紀>의 “以惡食食項王使者” ⇒ <正義>에서 “上食如字, 下音寺.”라고 하였는데, ‘如字’와 ‘直音’을 이용해서 두 ‘食’자의 음을 구별하였다. 즉 첫 번째 ‘食’자는 원래의 독음으로 읽고, 명사로 ‘음식물’을 나타내며, 두 번째 ‘食’은 동사로서 ‘먹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문장 구조를 보면 ‘以惡食’이 介賓구조로 동사 ‘食’을 충당하는 형식의 牀語로 사용되었다.
- 3) <魯仲連鄒陽列傳>의 “今臣盡忠竭誠, 筆議愿知.” ⇒ <集解>에서 “張晏曰‘盡其計議, 愿王知之.’”라고 풀이하였는데, 여기서 張晏의 주를 인용하여 ‘其計議’로 ‘議’를 풀이하였다. 즉 ‘議’자의 앞에 ‘計’ ‘其’를 사용하여 ‘議’를 名物化하여 독자로 하여금 문장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 <白起王翦列傳>의 “故不如因而割之” ⇒ <正義>에서 “因白起之攻割取韓趙之地.”라고 하였는데, 전치사 ‘因’ 뒤에 목적어 ‘白起之攻’을 추가하여 ‘之’가 ‘韓趙之地’를 가리키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 5) <魯仲連鄒陽列傳>의 “權使其士, 虜使其民” ⇒ <索隱>에서 “言秦人以權詐使其戰士, 以奴隸使其人民. 言無恩以恤下.”라고 하였는데, ‘權’과 ‘虜’ 앞쪽에 ‘以’자를 첨가하여 ‘權’과 ‘虜’자가 주어가 아니고 명사가 牀語가 되어 동사인 ‘使’를 수식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이다.
- 6) <留侯世家>: “誰爲陛下畫此計者?” <日者列傳>: “今夫子所賢者何也?” <淮陰侯列傳>: “若所追者誰何?” <魏世家>: “然則寡人孰相?” ⇒ 다양한 의문사를 사용하였고, 아울러 수사와 장소를 나타내는 낱말들과 함께 사용하여 수량과 연령, 시간, 크기 등을 묻거나 장소를 묻는 의문대명사로 사용하고 있다.
- 7) <李將軍列傳>의 “廣家世世受射.” ⇒ <索隱>에서 “世受射法”라고 하고 ‘法’字를 추가함으로써 쉽게 의미가 통하도록 하여 動+賓 구조를 이룬 문장으로 해석함이 옳다고 지적하였다.
- 8) <廉頗藺相如列傳>의 “李牧者, 趙之北邊良將也. 常居代雁門, 備匈奴” ⇒ <正義>에서 “今雁門縣在代地, 故云代雁門也.”라고 하여 ‘在’자를 사용하여 ‘雁門’은 ‘代地’에 속하는 것임을 지적하여 ‘代’와 ‘雁門’이 제한과 피제한의 관계로 ‘代雁門’이 지명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였다.

## 2.5. 校勘의 用例

《史記》三家注의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작자들은 자신들의 편찬 의도에 맞추어 당시에 유전되던 經, 史, 子, 集을 포함한 많은 교감자료들을 인용하였다. 특히 古本, 俗本 및 기타 다양한 판본들을 수록하였으며, 사용된 용어도 ‘古本’, ‘古作’, ‘舊本’, ‘俗本’, ‘俗作’, ‘他本’, ‘一本’, ‘有本’, ‘本作’ 등 매우 다



양하였다<sup>13)</sup>. 三家注는 자료 수집뿐 아니라 인용 자료에 대한 고증 작업도 함께 진행하였다. 三家注의 문헌 정리 작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선행 연구자의 연구 성과에 대한 변별 및 재해석을 진행하였다. 三家注가 지닌 문헌정리에서의 가치는 다음 몇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다양한 주장들을 인용하여 후인들로 하여금 객관적인 판단을 유도하였다.

<吳太伯世家>의 “大而寬，險而易，行以德輔，此則盟主也”- <集解> “서광은 맹자는 맹자로 쓰기도 한다고 하였다. 내 생각에 가구는 크 뜻이 크고 바르니 곡례가 있고,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과 중용의 덕은 이루기 어려우나 실제로 행하기는 쉽다고 여겼기에 덕으로서 이것을 보충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맹주의 뜻이다. 두예는 그 나라가 작고 어진 임금이 없음을 애석한다고 하였다(徐廣曰盟一作明。駟案，賈逵曰，其志大，直而有曲禮，歸中和中庸之德，難成而實易行。故曰以德輔，此則盟主也。杜預曰惜其國小而無明君)”이라고 풀이하였다. 주석의 내용을 살펴보면, <史記>의 이문 상황과 가구와 두예의 해석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 것인지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吳太伯世家>의 “越使死士挑戰”- <集解>에서는 “서광은 死는 誨이라고도 하며, 越世家에도 그와 같이 사용하고 있다. 越자는 사람의 성씨라고 여기기도 한다. 내 생각에 死士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정중의 경우 사사란 죽음으로써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였고, 두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비를 말한다고 하였다.(徐廣曰死，一作誨，越世家亦然，或者以爲人名氏呼?駟案死士，死罪人也。鄭衆曰，死士，欲以死報恩者也。杜預曰敢死之士也)”라고 풀이하였다. 裴駟는 徐廣의 말을 인용하여 각 판본의 차이점을 설명하였고, 賈逵와 鄭衆 및 杜預의 주장을 나열하여 ‘死士’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太史公自序>의 “故易曰失之毫釐，差以千里”- <集解>에서는 “서광은 일설에는 차이호리, 일설에는 묘이천리라고 한다고 풀이하였다. 내 생각에 금본 역에는 이러한 기록이 없으며, 역위본에 기록되어 있다.(徐廣曰一云差以毫釐，

13) 三家注에서 인용된 異本 자료들은 대체로 家傳本과 鄒誕生의 <史記音義>, 劉伯莊의 <史記音義> 등 과 금석문 및 碑刻등의 자료가 해당되는데, 程金造의 고증에 따르면 인용된 서적이 420여 종에 달한다.

一云繆以千里。駟案今易無此語，易緯有之”라고 하여 두 판본의 차이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인용된 문장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이와같이 《史記》에 인용된 구절의 역대 학자들의 주장 및 그들의 저서들을 함께 실고 있다.

《史記》三家注는 주석 작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활기를 띠는 魏晉南北朝 및 수당의 저작으로, 당시의 裴松之《三國志注》와 顏師古《漢書注》에 비해서 주해와 훈석에 있어 자신의 주장 외에도 前代의 연구를 모아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三家注의 주석 내용이 풍부하며 새로운 대안 제시를 하고 있어 주석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방법적이 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三國志注》와 마찬가지로 문장에 대한 주석과 典籍의 인용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주장들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주석방법을 제시하였다. 둘째, 兩漢과 隋唐 시기의 다양한 자료들을 수록하고 있다. 인용된 자료는 대부분이 현존하지 않는 자료들로서 후대의 집일(輯佚)과 목록(目錄) 두 분야에서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程金造는 “三家注에 인용된 서적이 도합 1000여종에 이르며, 그 중 중복된 서적을 제외하고도 500여종 정도는 될 것이다. 隋書와 唐書의 藝文志에 수록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이 이미 유실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500여종의 서적을 통해 중국학술의 흥망성쇠를 살펴볼 수 있으며, 서적의 유실 연대를 고증할 수 있어 목록학 연구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sup>14)</sup> 라고 三家注에 수록된 문헌의 풍부함을 지적하고 있다<sup>15)</sup>. 이 밖에도 三家注에서는 《史記》원문 속에 기록된 서적의 유실 부분과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차이점을 수록하고 있다. 예를 들면 《殷本紀》에서 “중정이라는 글은 누락되어 온전하지 못했다(仲丁書闕不具也.)”라고 기록하였는데,《索隱》에서는 “무릇 태사공은 옛날 중정편이 있는 것을 알았으며, 현재는 이미 유실되어 수록되지 않았다(蓋太史公知舊有仲丁

14) 程金造云: “三家注所引之書, 合之可千有餘種, 若除其重複, 尙可得五百種上下. 有隋唐《書》志所不著錄者, 而絕大部分已經亡佚. 但此五六百種之書, 它可以驗中國學術之消長, 可以考書籍亡佚之時代, 在目錄學上是有重要性的.”(《史記官窺》, 1985년, p282)

15) 程金造의 《史記索隱引書考實》에서는 《史記索隱》에서 인용한 도서에 대한 목록을 분류 수록하고 그 출처를 밝혀두고 있고, 段書安의 《史記三家注引書索引》는 비록 빠진 서적들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인용된 서적들을 검자법에 의거하여 분류 수록하고 있다.

書, 今已遺闕不具也.)”라고 하여 《尙書》逸篇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셋째, 三家注에는 隋唐이전의 《史記》와 관련된 많은 古注本들이 인용되어 있는데 그 가치가 宋本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sup>16)</sup>. 특히《史記》校勘 분야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첫째, 매우 풍부한 교감자료의 활용

- 1) 《五帝本紀》“帝摯立, 不善” → 《索隱》에서 “古本에서는 ‘不著’라고 하였다. 音은 張과 慮의 반절 소리이다. 俗本에서는 ‘不善’이라 하였다. 不善은 微弱한 것을 의미하며, 不著는 不著明과 같은 뜻이다(古本作不著, 音張慮反. 俗本作不善. 不善謂微弱, 不著猶不著明)”
- 2) 《五帝本紀》“百姓昭明, 合和萬國”) → 《索隱》에서 “<古文商書>에는 ‘平’이라 하였다. 이 문장에서는 平을 浦와 耕의 반절 소리로 읽었다. 平은 바로 편리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쉬운 문장을 썼다. 金문에서는 辯章이라고 하였다. 옛날에는 平字를 또한 便이라 썼다. 音은 奴와 緣의 반절 소리이다. 便是 나누다라는 뜻으로 풀이하여, 마침내 辯章이 되었다. 鄒誕生本에서도 같은 풀이를 하였다.(古文商書作平, 此文蓋讀平爲浦耕反. 平卽訓便, 因作便章. 其今文作辯章. 古平字亦作便, 音奴緣反. 便則訓辯, 遂爲辯章. 鄒誕生本亦同也.)”

둘째, 다양한 참고 자료에 근거한《史記》의 문장 교정

- 1) 《高祖本紀》“十二年, 十月, 高祖已擊布軍會甄” → 《集解》에서 “徐廣은 蕪縣의 서쪽에 있다고 하였다. 保인은 <漢書音義>에서 會는 儉로 발음 하며, 高을 이름이고, 甄는 直과 僞자의 반절 소리라고 풀이 하였다. <索隱>에서는 앞 글자의 音은 繪이고, 다음 글자의 音은 丈과 僞의 반절소리로, 지명이라고 풀이하였다. <漢書>에서는 缶라고 쓰고 있으며, 그 소리는 保라고 하였는데, 잘못된 것이다.(徐廣曰, 在蕪縣西. 駟案, 漢書音義曰會音儉保, 邑名, 甄音直僞反. 索隱上音繪, 下音丈僞反, 地名也. 漢書作缶, 音作保, 非也)”

셋째, 유전된 판본에 대한 수집과 개인적인 의견 제시

- 1) 《高祖本紀》“文之敝, 小人以僂.” → 《索隱》에서 “정현은 그 글자의 소

16) 程金造, 《論史記三家注解》, 《史記管窺》, 1985年 참조.)

리를 先과 代의 반절 소리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鄒本에서는 薄이라고 쓰고 있어 이 두 판본이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 말은 본래 子思子에서 나오는 말로서 금문예기에서는 薄자를 쓰고 있다. 따라서 鄭玄이 주에서 문이라고 한 것은 준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薄는, 잠시 동안 문장의 법을 익힌 것으로, 성실하고 정성스럽지 못하다는 뜻이다. 襄駟 또한 音隱을 인용하여 僿의 음은 先과 志의 반절 소리이며, 그 차음은 원래 僿과 塞의 소리가 가깝기 때문이다. 대체로 僿은 薄자의 뜻과 같다.(鄭音先代反, 鄒本作薄, 是本互不同也. 然此語本出子思子, 見今禮表記, 作薄, 故鄭玄注云文, 尊卑之差也. 薄, 苟習文法, 不愾誠也. 襄又引音隱云僿音先志反, 僿塞音聲近故也. 蓋僿猶薄之義也)

넷째, 《史記》舊本에 대한 구체적 명시

- 1) 《五帝本紀》“幼而徇齊” → 《索隱》에서 “사기의 구분 역시 濬齊라고 하였다. 옛날에는 아마도 徇자로 濬자를 가차하여 썼던 것으로 보이며, ‘깊다’라는 뜻으로 함께 통용되었다.(蓋古字假借徇爲濬, 濬, 深也, 義亦并通.)”
- 2) 《殷本紀》“母曰簡狄” → 《索隱》에서 “舊本에서는 易으로 쓰고 있으며, 易과 狄는 동음으로 사용되었고, 湯으로 쓰기도 한다. 그 음은 吐와 歷의 반절음이다.(舊本作易, 易, 狄音同. 又作湯, 吐歷反.)”라고 하였다.
- 3) 《河渠書》“數爲敗, 乃廝二渠以引其河.” → 《索隱》에서 “廝자는 <漢書>의 경우 ‘醴’자로 쓰고 있으며, <史記>의 舊本에서도 ‘酒’자로 쓰고 있다. 물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廝, 漢書作‘醴’, 史記舊本亦作‘酒’, 字從水.)”라고 하여 당 이전 《史記》의 “舊本”들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교감을 통한 교정

- 1) 《殷本紀》의 “湯歸至於泰卷陶” → 《索隱》에서 “鄒誕生의 <史記輯注>에는 坳자로 쓰거나 또는 澗자를 쓰고 있다. 따라서 卷자는 마땅히 坳자로 써야만 尙書의 기록과 같게 되며, 후에 추가된 글자가 아니다. 그 뒤에 기록된 陶는 후에 추가된 글자일 따름이다. 어떠한 이유에서 인가? 尙書を 풀이한 사람들이 大坳으로 기록한 것을 오늘날 陶자로 바로 잡았다. 옳은 것이다. <史記>舊本の 경우 어떤 경우에는 옆에 그 지명을

기록하였는데, 후인들이 기록을 전하는 과정에서 마침내 이 글자를 더 하게 되었다.(鄒誕生卷作垆, 又作洞, 則卷當爲垆, 與尙書同, 非衍字也. 其下陶字是衍耳. 何以知然. 解尙書者以大垆今定陶是也, 舊本或傍記其地名, 後人轉寫遂衍斯字也)”

### III. 결론

중국 전통언어학, 소학은 문헌정리 작업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왜냐하면 고문헌은 書面語인 文言文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언어문자 그 자체가 정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문헌 정리에 있어서 문자, 음운, 훈고, 어법 등은 필수학문인 것이다. 청대의 고문헌 정리가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小學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적절하게 응용하였기 때문이다. <史記>도 예외가 아니다. <史記>의 언어문자는 바로 한초의 언어문자의 현상을 반영한 것임과 동시에 선진시기의 문자 사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이다. 또한 그 주석서인 三家注에는 양한에서 수당에 이르는 귀중한 언어학 자료들을 담고 있어 우리가 그 시대의 언어문자에 대한 학문적 이해는 물론이고 언어문자의 실제사용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앞서 본문에서 <史記>에 사용된 문자, 음운, 훈고, 어법, 교감 등의 용례들을 통해서 고한어와 문헌정리 작업의 연계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史記>는 그 양이 방대한 문헌자료이기 때문에 실제로 곳곳에 언어문자의 용례가 매우 많이 산재되어있는데,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외에도 三家注에는 古今字에 대한 용례, 가차자, 이체자 등 폭넓은 언어문자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다. 향후 <史記>의 언어문자 현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史記>에 내재된 문헌적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아울러 기존 전통 소학의 연구에도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 문헌

- 司馬遷,『史記』,北京,中華書局,1998.  
段玉裁,『說文解字注』,臺灣,黎明文化事業公司,1994.  
顏之推,『史記』,北京,天津古籍出版社,1995.  
王力,『中國語言學史』,北京,中國圖書出版社,1981.  
湯可敬,『說文解字今釋』,北京,岳麓書社,1998.  
郭良夫,『詞匯與詞典』,北京,商務印書館,1990.  
王力,『語言學論文集』,北京,商務印書館,2000.  
宗福邦等,『故訓匯纂』,北京,商務印書館,2003.  
高小方,『中國語言文字學史料學』,南京,南京大學出版社,1998.  
陸宗達,王寧,『訓詁與訓詁學』,北京,山西教育出版社,1996.  
徐中舒,『甲骨文字典』,北京,四川辭書出版社,1990.  
周祖謨,『語言文史論集』,臺灣,五南圖書出版公司,1992.  
蔣紹愚,『古漢語詞匯綱要』,北京,商務印書館,2005.  
徐朝華,『上古漢語詞匯史』,北京,商務印書館,2003.  
程湘清,『兩漢漢語研究』,北京,山東教育出版社,1994.  
鄧安生,『通假字典』,北京,花山文藝出版社,1998.  
朱承平,『古訓材料的鑑別與應用』,北京,暨南大學出版社,2002.

❖ ABSTRACT

## The Study of Ancient Chinese and arrange SHI-JI document

SEO Weon Nam

China has countless ancient books that contain thousand years of continuously recorded history across every generation. It is essential to organize the ancient cultural literature in order to better communicate. The study of ancient Chinese literature recently has become a subject of priority. Shi-Ji, one of the representative documents, is used for record keeping because of its experience with ancient Chinese historic materials and artifacts. This draft of Shi-ji is based on ancient Chinese research methods with the purpose to explore the character, phonology, syntax, exegesis and collation of historical value.

---

### Key Words

중국문자, 사기, 고대한어, 문헌정리, 중국문화

Chinese character, SHI-JI, Ancient Chinese, document arrange, Chinese culture

논문접수일: 2014. 05. 10

심사완료일: 2014. 06. 09

게재확정일: 2014. 06. 13